

송당 신화의 분화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탄생

김진하*

< 차례 >

- I. 서론
- II. 송당 신화와 자손 신화
 - 1. 당 가르기
 - 2. 금백조의 아들들
- III. 자손신화의 원형 검출 문곡성
 - 1. 이름을 가진 신
 - 2. 부모신과의 갈등
- IV. 과장된 신화 퀘내깃도
 - 1. 퀘내깃도의 위상
 - 2. 김녕 마을의 민속
- V. 문곡성은 누구인가
 - 1. 본풀이 속의 문곡성
 - 2. 민담 속의 문곡성
 - 3. 역사 속의 문곡성
- VI. 결론

국문요약

제주도 신당의 원조로 인정받는 송당 마을 분향의 본풀이를 신화학적 관점에서 고찰하면 그동안 민속학적 관점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제주도 당신화의 발생과 계보를 새롭게 볼 수 있다. 송당 신화는 송당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제주도의 절반 동쪽 지역을 완전히 포괄하는 정교하고 강력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

* 서울 양정고등학교 교사

러나 그간의 연구들은 부모의 신화와 그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손들의 신화의 성격을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게다가 송당 본향에서 갈라서나온 신당 중에서 그 순위가 한참 뒤로 밀리는 김녕리의 궤내깃도 본풀이에 과도하게 중요성을 부여한 나머지 최초의 당 가르기를 보여주는 첫째 아들의 본풀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송당 신화에서 2차신화의 원형인 첫째 아들 문곡성(문국성)의 신화를 다각도로 추적하여 송당 신화의 체계와 계보의 원리를 신화학적 관점에서 구성하고 있다.

주제어 : 송당 신화, 당 가르기, 소천국, 금백조, 문곡성, 궤내깃도

I. 서론

제주의 여러 마을에 산재한 신당들이 간직한 본풀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계보를 갖는다는 점이다. 어떤 당에 좌정하게 된 조상이나 신의 내력을 읊어나가는 심방의 구술은 몇 개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단지 이야기의 유사성에 그치지 않고 신당의 유래가 신들의 계보와 관련되어 있음을 전해준다. 다시 말해서 신당 사이에도 인척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인데, 이런 계보가 가장 뚜렷한 본풀이 중 하나가 송당 신화이다. 여러 학자들이 그동안 송당 신화를 제주무속신화의 원조라고 한결같이 지적하는 이유도 그 정연한 계보에 있다¹⁾. 송당 신화는 그 내용이 뜻하는 바에 있어서 신화의 고대성을 입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²⁾ 그 자손당들의 계보 역시 뚜렷하여 본향(신당의 다른 이름)의 신성함과 신화학적 위상을 가늠하게 해준다.

1)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157.

2) 현용준, 같은 책, pp.158-159.

제주섬 전역에 산재한 신당들의 계보를 정리하고자 한 작업을 보면 신당의 계보는 몇 가지로 나누어진다. 현용준의 조사를 보면, 동부지역의 여러 마을로 퍼져나간 송당신의 계보 외에 한로영주삼신산 계열은 아홉형제로서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또 다른 계보는 동백자하로산(동백자하로산)과 족다리대서부인 사이에서 난 일곱의 딸들이 각각 서귀포와 안덕 지역에 당신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들어온 여신들로서 조천리 정중부인과 김녕리 관세전부인, 온평리 맹호부인은 자매지간으로 알려져 있다³⁾. 이런 계보를 고대경도 특징적으로 분류하여 한라산신(하로백관도) 계열과 송씨 할망 계열, 금백조 계열 등으로 나누고 있다⁴⁾. 그러나 한라산신 계열이나 송씨 할망 계열은 본풀이의 유사성에 근거하는 경향이 크고, 금백조 계열처럼 뚜렷한 계보가 주어지는 경우는 미미하다.

송당 신화를 전하는 본풀이를 보면 금백조의 출신에 대한 사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⁵⁾. 그런데 백조 할망은 그 출신지를 서울 남산 송악산으로 보든, 왕대웃성 감림길로 보든지 간에 농경문명을 가진 세력이 제주섬에 들어와서 정착했다는 사실을 담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에 비해서 한라산신 계열이나 송씨 할망 계열은 것처럼 뚜렷한 이야기를 갖추고 있지는 못하다. 하지만 신화학적으로 보면 그런 형태들이 더 고대적이고 원시적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한라산신이란 그야말로 제주의 토착신임을 말하는 것이요, 송씨 할망 계열은 모계신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까닭에서이다⁶⁾. 그러나 어쨌든 일관된 체계와 사설을 바탕으로

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p.160-161. 이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현용준, 「제주도 당신화고(考)」,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pp.75-114 참고.

4) 고대경, 『신들의 고향』, pp.409-412.

5) 줄고,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pp.79-84.

6) 고대경, 『신들의 고향』, pp.288-293.

신의 위용과 좌정담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아직까지 활발히 전승되고 있는 것으로는 송당 본향의 역사와 전통에 버금가는 예가 보이지 않는다. 그러하기에 송당 본향은 제주 신당의 원조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채록된 송당 본향 본풀이들(장주근, 진성기, 현용준 등의 채록본)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구송되는 송당 본향 본풀이가 매우 명확하기는 하지만 무슨 굉장한 영웅담은 아닌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어느 채록본을 준거로 삼든 송당 신화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⁷⁾. 소천국과 백조 할망이 혼인하여 살다가 살림을 분산하여 살게 되는 것이 전반부, 즉 1차신화이고, 그 아들이 부모에게서 쫓겨나와 용궁과 강남천자국에서 용맹을 떨치고 나서 제주도로 돌아와 새로운 신으로 등극하는 내용이 2차신화이다. 그러니까 송당 신화는 부모신화와 자식의 신화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이 두 개의 이야기 단락에서 전반부는 부모의 본풀이인 까닭에 그로부터 갈라져 나온 자손담들에서는 어디서든 공통적으로 구송되는 것이요, 후반부는 각각의 신당의 주인공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며 구연된다. 이른바 ‘당 가르기’를 통해서 각각의 신들이 독자적으로 마을마다 좌정하게 되면서 본풀이도 새롭게 구성된 것이다.

신들의 계보와 신당 사이에는 ‘당 가르기’라는 고유한 원리가 작동한다. 보통 신들 사이의 불화가 원인이 되는 이러한 당 가르기는 제주도 무속의 고유한 특징인데, 그 원인에 대한 해석은 아직 뚜렷하지 않다. 소천국과 금백조의 경우처럼 부부가 갈라서기도 하고 서귀포의 바람웃도의 두 부인인 고산국과 지산국처럼 자매가 갈라서기도 한다. 그리고 당 가르기는 신들의 불화로 야기된 까닭으로 그 신들이 좌정한 마을 간

7)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p.116.

에도 반목이 발생하는 양상으로 전개된다. 당 가르기라는 것은 하나의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경쟁이나 갈등을 반영한다.

송당 신화는 소천국과 금백조의 분열에 의한 첫 번째 당 가르기와 자손들에 의한 두 번째 당 가르기로 이루어진다. 소천국과 금백조의 당 가르기는 수렵문명과 농경문명의 갈등과 공존을 동시에 상징하는 것으로써 모든 송당계 신화에 공통된다. 그러나 송당 신화의 2차 당 가르기는 새로운 영웅의 출현과 기존의 신들과의 갈등 등 좀더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우선 아들신만 열여덟을 헤아리는 송당 신당의 본풀이가 어째서 아들신들의 이름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게 반복되는지 해명해야 한다. 2차신화의 내용이 동일하게 반복된다면 2차신화의 원형이 존재함을 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송당신의 자손신화가 갈라서게 되는 2차신화의 원형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2차신화의 원형은 금백조와 소천국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에서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풀이에 따르면 첫째 아들은 한결같이 검홀 문곡성으로 나타나므로 검홀 문곡성 본풀이가 2차신화의 원형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정으로 보면 그동안 널리 퍼진 여섯째(혹은 일곱째나 여덟째) 아들인 케네깃도가 지나치게 과장되었음이 드러난다. 그러므로 케네기 당신이 금백조 아들의 대표인양 과장된 이유도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새롭게 등장한 영웅의 직능에 대한 해석도 필요하다. 송당 신화의 당 가르기는 다른 신당에서와는 달리 뚜렷하게 위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렵문명과 농경문명을 상징하는 신들 다음에 등장하는 신은 어떤 직능을 가지게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II. 송당 신화와 자손 신화

1. 당 가르기

송당 신화와 관련된 본풀이를 비교해 보면 첫째 백조 할망과 소천국의 출생과 관련한 내용이 미세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현재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야기는 현용준 채록본이다. 그런데 현용준 채록본이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유는 이달춘 심방이 구송한 제주시 내 왓당본풀이와 김녕 궤내깃당 본풀이가 이야기구성이 풍부하여 일찍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정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야기의 구성과 표현 능력에서 보자면 진성기가 채록한 이상문 구연본 역시 그에 못지않다. 송당 본향 본풀이로 채록된 이상문 본은 소천국과 백조 할망의 출생에 대한 서술에서 고대신화의 흔적, 특히 신라계 신화와의 유사성을 풍부하게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⁸⁾ 사건의 전개나 수사법에서도 훌륭하다.

신화 자체의 흥미로운 영웅담에 주목하게 되면 송당 신화의 전반부는 비교적 간단하고 후반부는 매우 풍부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전반부는 내용이 비교적 뚜렷하고 과장이나 운색이 없이 공통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면 그것은 신성함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송당 신화의 역사적 성격을 분명히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송당 신화의 전반부, 그러니까 송당 신화 계열에서 순수하게 송당 마을과 관련된 소천국과 금백조의 이야기는 신화이자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신화화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송당 신화의 두 주인공인 소천국과 금백조의 행적은 현실적인 사건처럼 그려져 있어서 거기서는 소위 신화적 과장

8) 줄고,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29호』, pp.67-97.

이란 것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금백조는 어린 나이에 불교 세력에 쫓겨 송당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소천국과 결혼하여 농사를 지었으나 소천국이 그 농경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하자 갈라섰다는 것이 이야기의 전부이다. 이런 이야기의 주무대도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송당 마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소천국과의 사이에 낳았든 아니면 처음부터 어딘가에서 데리고 왔든 금백조가 자손을 많이 두었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으나 그것만을 두고 신화적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고대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것이 풍부한 생산성을 보여주는 증표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은 혼한 일이기도 했고 또한 그것은 비유적으로 정치세력을 나타낸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백조 할망의 자손의 수는 구연자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한편 송당 신화의 주된 여신인 금백조의 행적이 본풀이에는 매우 평범한 여자처럼 그려져 있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천국보다 윗자리를 차지하고 이후에 갈라서 나가는 자손당들에게 권위를 물려준다는 점에서 볼 때 금백조 신화는 신화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당 신화에서 그나마 신화적 위용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것은 금백조의 남편 소천국인데, 사실 그가 보여주는 위용이라는 것도 쟁기를 댔던 소를 잡아먹고 그것도 부족해서 한 마리 더 잡아먹을 정도로 대식하였다는 점과, 쟁기를 배로 밀며 밭을 갈 정도로 장사였다는 정도에 그친다. 즉, 소천국의 위용이라는 것도 역동적인 활약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소박하고 단순한 편에 속한다.

송당 신화에서 이야기의 전개가 흥미롭고 다채롭게 나타나는 것은 오히려 송당 신화에서 갈라져 나온 자손당들의 본풀이다. 널리 알려진 김녕 퀘내깃당 본풀이나 제주시 내왓당의 천자또마누라 본풀이 등을

보면 금백조의 아들들은 부모에게서 쫓겨나 무쇠철갑에 담겨 용궁으로 떠내려가고 용왕의 셋째 딸과 혼인하여 살다가 강남천자국으로 가서 난리를 평정하여 영웅이 됨으로써 다시 제주도로 귀향한다. 그리고 금백조나 소천국에 맞먹는 위세를 떨침으로써 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신화적 상상력이 한껏 들어간 영웅담이라고 할 수 있다. 용궁이니 강남천자국이니 하는 공간은 비현실적인 상상의 공간인데 금백조의 아들은 그런 곳에서 두루 난관을 거치고 용맹하게 살아남음으로써 역시 신성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는 것이다.

그러면 대를 이은 영웅의 탄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소천국과 금백조 사이에서 버릇없는 아들이 태어나 부모와 불화하여 새로운 신이 된다는 본풀이는 실제로 새로운 신당이 본향에서 갈라져 나오는 당 가르기와 관련되어 있다. 제주도 신화에서 신들이 불화하여 당을 가르게 되는 본풀이들은 여러 곳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송당 신화만의 특징은 아니다. 하지만 송당 신화의 당 가르기는 내용상 자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소천국과 금백조의 첫 번째 당 가르기가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아들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구성할지는 구연자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말의 앞뒤를 맞추려면 소천국과 금백조가 갈라서기 전에 이미 버릇없는 아들이 태어나서 무쇠석함에 담고 내쫓아 버렸다고 할 수도 있고, 소천국과 금백조가 먼저 갈라서고 난 다음에 금백조 밑에서 자라던 자식들이 아버지를 찾아갔다가 버릇없게 구는 바람에 쫓겨났다는 것으로 맞추기도 한다⁹⁾. 흠어머니 밑에서 자라다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아비를 찾아나서는 일

9)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예를 들어 이상문 구술(pp.408-415)에서는 금백조가 이미 중의 몸에 여덟 아들이 있었다 하고, 임을로 구술(pp.374-377)에서는 소천국과의 사이에서 자식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있다.

반적인 영웅담들에 비추어보면 이상문 본이 더 그럴듯하다. 어쨌든 금백조와 소천국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부모 양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음으로써 쫓겨난다는 것은 동일하다. 이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특징인데 일반적으로 전승되는 고대의 건국신화에서 부모 찾기는 자신의 영웅적 근원을 찾아가는 통과의례적 장치로 설정되는 반면 송당 신화의 자손들은 하나 같이 부모신들로부터 쫓겨난다. 이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정치학으로 읽는다면 새로운 신의 세력이 갈라져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새로운 영웅의 탄생을 새로운 신당의 출현과 일치하는 이 신화의 정치학은 송당 신화를 두 개의 신화로 뚜렷하게 나누어놓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러한 신화는 신들의 계보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신들의 권력관계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부모에게서 쫓겨난 아들이 새로운 영웅이 되어 제주도로 귀향하고 한라산의 신이 되는 2차 신화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송당 신화의 체계에 중대한 권력의 변동이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신이 차지하는 신당들이 각기 다른 마을에 들어서고 있다는 것은 국가권력의 구조변동에 버금하는 마을 사이의 정치역학적 관계를 암시한다.

2. 금백조의 아들들

송당 신화에서 2차 신화들은 열여덟 명에 이르는 아들신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당에 따라 신의 호칭만 다를 뿐 본풀이의 줄거리는 거의 일치한다. 그것은 1차신화가 하나의 모태로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차신화도 하나의 원형이 존재함을 암시한다. 그렇다면 송당 신화에서 자손신화의 원형은 열여덟 명의 아들 신 중에서 누구의 것일까.

그것은 당연히 첫째 아들의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송당 신화의 2차신화의 원형은 첫째 아들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

송당 신화의 아들이 제주섬의 전역에, 특히 제주시에서 표선면에 이르는 동부에 주로 분포하고 있음은 심방들의 구연과 신당의 분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송당 본향의 아들이 흩어져 나간 당은 김오생 심방이나 양기정 심방이 구연한 것만으로 열여덟이다. 그것은 ‘아들애기 열여덟, 딸애기 스물여덟, 손지방상 삼백일흔여덟’ 가운데 아들에 대한 거론과 일치한다. 김오생의 구술을 양기정의 구술과 더불어(괄호 안은 양기정 구술) 읽어보자.

- 큰아들은 김흠 문국성,
- 둘째 아들은 대정 광정당 (성안 내왓당 대천오)
- 셋째 아들은 옷내끼 (대정 광정당)
- 넷째 아들은 내왓당과 광양당 (정의 시선당)
- 다섯째 아들은 선양당과 들윗당 (수산 하로하로산)
- 여섯째 아들은 괴로 본산국 (토산 대천오)
- 일곱째와 (김녕 태자)
- 여덟째는 삼문 이서당 오라서 과양당 한곳에 처무 (조천 쾃트르)
- 아홉째 아들은 드리 산신토
- 열째 아들은 쾃트르 산신토 (옷내끼)
- 열한 번째 아들은 와흘 산신토 (차귀 허릿공)
- 열두 번째 아들은 세미 산신토 (괴 본산국)
- 열셋째 아들은 도련 (와흘 산신토)
- 열넷째 아들은 감을개 시월도병서 (세미 산신토)
- 열다섯째 아들은 알선홀 산신토 (도련)
- 열여섯째 아들은 김녕 괴노기 (감을개 시월도병서도))
- 열일곱째 아들은 토산 서편 한집 (알선홀 산신토)
- 열여덟째 아들은 도들봉 (도들봉 오름허리).¹⁰⁾

송당신의 아들 열여덟 신을 차례대로 읊은 경우는 이 정도이다. 그밖에도 민속학자 장주근이 집중적으로 채록했던 고대중 심방의 경우도 명확히 차례를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덟째에서 그치고 있다. 고대중 심방본에서도 “큰아들은 검흠 문국성, 둘째 아들은 대정 광정당, 셋째 아들은 정의 시선당... 여덟째 아들은 김녕 괴노기(궤네기)”¹¹⁾로 나타나고 있다.

이 세 가지 본풀이의 비교에서 눈에 띄는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송당신의 첫째 아들이 검흠 문국성(혹은 문국성)이라는 데에 모두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요즘 흔히 송당신의 아들로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김녕의 궤내깃도 당신은 그 차례가 한참 뒤로 밀려나 있다는 것이다. 고대중 심방의 구연에서도 큰 아들은 검흠 문국성이고 김녕의 괴노기 당신은 여덟째아들로 불려지고 있다¹²⁾. 물론 당신의 계보를 구송하는 것은 심방에 따라 차이가 있고 같은 심방도 때에 따라 그 순서에 차이가 생긴다는 현용준의 지적은 중요하다¹³⁾. 심방마다 계보가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심방이 주로 모시거나 가까이 하는 당신을 계보의 우선순위에 넣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계보를 달리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첫째 아들이서부터 착오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적어도 송당신의 첫째 아들에 관한 한 모든 심방들이 대개 일치하고 있다. 심방의 권위와 본풀이 구송에서 가

10)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김오생 구술은 p.417, 양기정 구술은 p.419.

11) 진성기, 같은 책, p.416.

12) 한편 애월면의 김을봉 심방이 구술한 것은 아들의 차례를 부르지 않고 많은 마을의 당신들을 송당신의 아들로 부르고 있는데, 그 신당들의 분포가 주로 제주 서부지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진성기, 같은 책, pp.418-419. 김을봉 심방은 애초에 서부지역의 모든 신당들이 송당신의 자손당이라고 가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 현용준,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p.158.

장 중요하게 인정받는 본풀이들에서 한결같이 첫째 아들은 검홀 문곡성이라고 전한다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인 일치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Ⅲ. 자손신화의 원형 검홀 문곡성

1. 이름을 가진 신

송당의 가지당들에 대한 심방들의 구연에서 아들들의 순서에 대한 것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적어도 첫째 거멸(검홀) 문곡성에는(넓게는 둘째 대정의 광정당, 정의 시선당(성산읍)) 등은 거의 변함없이 일치한다. 그리고 송당 본향의 자손당들의 본풀이는 그 주인공의 이름만 바뀔 뿐 거의 동일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물론 제주시 내왓당의 당신인 천자또마누라처럼 금백조의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가 좌정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것 역시 금백조의 아들의 영웅담에서 용궁의 셋째 딸로 나오는 신일뿐이다. 그리고 송당계 신화에서 며느리당신들은 ‘이렛당신(七日堂神)’과 관련된다¹⁴⁾. 다시 말해서 그것은 서로 다른 신화의 융합으로 보인다. 송당 본향에서 갈라져 나온 신당들이 하나같이 아들임을 자처하고 본풀이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그 아들들의 순서가 적어도 첫째에서부터 서너 번째까지는 동일하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송당 신화의 자손당의 원형은 그 첫째 아들 검홀 문곡성(문곡성)임을 알 수 있다.

거멸은 ‘검홀’¹⁵⁾이 곡해된 음으로 보이는데 지금의 구좌읍 덕천리의

14) 현용준,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p.102.

15) 검홀은 <탐라순력도의 한라장축>에서는 今勿佻로 표기되어 있다. 제주 동북지역

옛이름이다. 이 마을은 송당 마을에서 보면 북쪽에 있으며, 해안 마을인 김녕과의 중간쯤에 위치하고 있다. 마을의 경계로 보면 송당리와 인접하고 있는데 이 마을의 당신이 송당신의 첫째아들이라는 것은 그 지리적 인접성으로 볼 때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신당의 분화는 인근 마을에서부터 점차 먼 곳으로 확산되었으리라고 추정하기 쉽기 때문이다. 현재 덕천의 문국성 당은 하덕천(검홀) 마을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검홀의 당신 문국성(혹은 문곡성)이 중요한 것은 신당의 지리적 인접성뿐만 아니라 금백조의 첫째 아들로써 뚜렷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와 대비되는 여러 마을의 가지당신들은 이름이 뚜렷하지 않거나 너무 유사하거나 하여 특징이 없다는 점과 비교해보면 검홀 문국성의 신화적 가치는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신격이 이름을 명확히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신성함이 확고함을 의미한다.

송당계 신당의 본풀이를 보면 금백조의 아들이 용궁과 강남천자국에 들렀을 때 그곳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은 보통 “어디서 온 도령이 되느냐? - 조선국 제주도에서 온 도령입니다”라는 문답이 일반적인 양상으로서 주인공이 자기 이름을 말하는 경우는 없다. 그런데 문국성 본풀이에서는 문국성이 뚜렷하게 제 이름을 낸다. 검홀 문국성이 강남천자국에 이르렀을 때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어디서 온 맹장님이 되십니까?”

“천하해동 조선국 제주도에서 들어온 문국성이 됩네다.”¹⁶⁾

의 홀자 지명에 대해서는 상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그것은 지금의 삼양에서 김녕까지 보인다. 감홀, 논홀, 와홀, 대홀, 선홀, 남홀, 검홀, 사라홀 등등이 그것이다.

16)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전』, p.413. 이상문 구연에서는 이 대목에서 보면 주인공의 이름이 본래는 송곡성이었으나 강남천자국에서는 문국성으로 속여 말한

물론 심방들의 구연 방식에 따라서 다른 곳의 본풀이에서도 같은 신의 이름을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여러 곳에서 불려지는 ‘산신도’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문곡성의 경우처럼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명확히 밝히는 예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문곡성 본풀이는 덕천뿐만 아니라 표선면 세화리 본향이나 토산리 웃당에도 그대로 전해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역시 “어디서 온 도령님이우까?-남방국 땅 제주도에서 온 문곡성이우다”¹⁷⁾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다. 이런 점은 송당 본향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당 가르기가 문곡성이라는 아들 신에 의해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소천국의 첫째 아들 검흠 문곡성의 영웅담이야말로 송당 신화에서 갈라져 나오는 본풀이, 즉 2차 신화의 원형이라는 점이다.

신당에 좌정한 당신의 이름과 관련한 이 미세한 차이는 신당과 당신의 이름 사이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강남천자국에서의 문답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소천국의 첫째 아들로 나오는 문곡성은 이미 처음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에 이후에 나오는 자손당들은 이름 없이 그냥 “제주도에서 온 도령” 째름으로 자신을 소개한다. 그리고 여타의 신들의 이름은 대개 마을의 지명과 관련되어 불려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은 당 가르기가 이루어지면서, 아니면 나중에 문곡성의 본풀이를 차용하고, 이름은 마을의 지명을 차후에 붙인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곡성이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신’인데 반하여, 지명과 관련된 당신은 ‘이름 없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왜 이름을 속여야 했는지에 대한 해명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다른 심방들의 구연에서는 문곡성으로 한결같이 부르는 것으로 봐서 당장은 일단 그냥 문곡성으로 인정해도 무방할 듯 하다. 물론 이 대목에서 당신의 단골이 송씨에서 문씨로 이동했다거나 두 성씨 간에 갈등이 있었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도 있다.

17) 진성기, 같은 책, p.469.

2. 부모신과의 갈등

소천국과 금백조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 문곡성은 부모에게서 쫓겨나 무쇠상자에 담겨 바다에 버려진다. 이것은 일종의 사형집행이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문곡성이 담긴 상자는 과연 영웅을 담은 그릇답게 바닷속으로 그냥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동쪽 바다 용궁으로 흘러들어간다. 이 세계는 이승의 나라가 아니라 저승의 세계와 같다. 저승의 세계에서 문곡성은 용왕의 셋째 딸을 배필로 얻게 된다. 하지만 문곡성은 대식가인 아버지 소천국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답게 워낙 대식가라서 용궁에도 해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다시 쫓겨나는데, 급기야 도달하게 되는 곳이 강남천자국이다. 문곡성은 강남천자국에서 난리를 평정하여 용맹한 장군이 되어 다시 제주도로 돌아온다. 문곡성 일행의 위용은 본풀이에서 “문곡성은 부인을 거느리고 일천병마 삼천군병을 거느리고 한라영산을 올랐다.”¹⁸⁾고 할 만큼 웅대하였다. 이런 위세에 놀란 금백조는 웃손당으로 달아나고 소천국은 알손당 고부니므루¹⁹⁾로 달아났다고 신화는 전한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지는 송당 신화의 전개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송당 신화는 소천국과 금백조가 주인공인 전반부와 문곡성이 주인공인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이야기 전개가 자연스러운 듯 느껴지지만 실상은 신화의 주인공이 교체되면서 뚜렷한 단절이 이루어진다. 일곱

18) 진성기, 같은 책, p.414.

19) 이 지명은 두 가지이다. 소천국은 ‘고부니므루’가 아니라 ‘고부니물’로 갔다고도 한다. 이 지명은 “곱은이 물”, 즉, “소천국이 곱은(숨은) 물”이라는 뜻이다. 이 해석은 송당리 주민들이 대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부니므루’라는 지명이 없지 않으나 ‘고부니물’이 더 그럴듯한 이유는 금백조를 모신 당 역시 ‘당내’라고 해서, 냇가(물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매우 의미심장한데, 송당의 당신이 좌정한 곳이 물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살에 부모에게서 버림받아 무쇠상자에 실려 바다로 띄워진 문곡성이 영웅이 되어 다시 나타나자 금백조와 소천국은 살아 돌아온 아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주목할 것은 금백조와 소천국이 문곡성을 두려워하여 웃송당과 알송당으로 달아났다고 되어있지만 사실은 달아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신화의 전반부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듯이 금백조가 웃송당을 차지하고 소천국이 알송당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그들이 본래의 제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뜻한다. 달리 말하면 문곡성의 영웅적인 귀환에도 불구하고 금백조와 소천국의 위상에는 아무 변화도 없다. 그런데 금백조와 소천국이 마치 아들신을 두려워하여 달아났다는 식의 이야기가 만들어진 것은 오로지 새로운 영웅 문곡성의 위세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수사학인 것이다. 신화적 수사학이 이처럼 교묘하게 작동하는 바람에 주인공의 위상이 어느새 역전된 듯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이 수사학의 의도를 들추어 읽으면 문곡성의 영웅적인 귀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소천국과 어머니 금백조의 신성한 권위에는 조금의 손상도 없다. 오히려 문곡성은 부모의 근거지인 송당에는 자리 잡지 못하고, 다시 말해 그 자리를 뺏지 못하고 송당을 피해 한라산 쪽으로 오르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은 그의 동생들로 이루어지는 많은 가지당들에서 동일한 양상으로 반복되는 것이다. 즉, 금백조의 자손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송당에 자리 잡으려 하지 않고 다른 마을로 흩어져서 당신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가지당들이 한결같이 “웃송당 금백조, 셋송당 세명조, 알송당 소로소천국”이라고 본풀이의 서두를 읊으로써 송당신의 권위를 빌리고 차용하고 있다. 송당 본향의 권위에 대한 의존과 도전이라는 이중적인 책략이 송당의 가지당들에서는 교묘한 수사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송당 본향이 도전하고 싶지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권위로 존재했음을 잘 보

여주는 증거이다.

IV. 과장된 신화 궤내깃도

1. 궤내깃도의 위상

새로운 아들신의 등장으로 송당 본향의 권위와 위세는 어느 정도 약화된 듯 보인다. 새롭게 등장한 신일수록 자신의 권위나 무용담을 과장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송당 신화의 굳건한 모태로서 존재하는 소천국과 금백조의 이야기는 새로운 아들신의 등장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약화된다. 애초부터 소천국과 금백조의 이야기는 과장을 통한 권위 세우기에 목적을 두지 않고 역사적 내력의 설명처럼 제시되고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반면에 아들신의 이야기는 부모의 신의 권위에 대해 도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야 했기 때문에 더욱 과장된 위용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으리라 짐작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널리 알려진 송당 신화는 대개 김녕의 궤내깃도 본풀이와 함께 덧붙여있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그것에 종속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김녕의 궤내깃도 본풀이가 이처럼 널리 퍼진 까닭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김녕리의 궤내깃도 본풀이가 일찍이 민속연구자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고 활자화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물론 그것은 송당 본향의 맏인 심방이었던 고봉선 심방이나 그의 아들 고대중 심방의 구연에서 나오는 것처럼 송당 본향에서 함께 불려진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장주근이 채록한 고대중 구연의 본풀이는 표준어로 옮겨지지도 않았고 대중화되지도 못하였

다. 그러나 현용준의 『제주도 신화』, 『제주도 전설』이 표준어판으로 나오고 현길언의 『제주도 장수 설화 연구』가 세상에 나오면서 퀘내깃도는 제주의 대표적인 당신으로 널리 퍼져 나갔다. 그것은 1960-70년대에 김녕 마을이 가졌던 문화적인 위상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오랜 전설을 간직한 김녕 사굴(뱀굴)의 서린 판관 전설과 세계 최장의 용암굴이라는 만장굴의 관광지화에 함께 김녕 마을의 신당제인 돛제가 주목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근래에 나온 몇몇 대중용 신화 개설서에는 퀘내깃도가 한라의 영웅으로 부각되어 나오는데, 이러한 과장은 송당 신화의 체계에 대한 몰이해와 기존의 민속학적 채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퀘내깃도 본풀이는 사실 소천국과 금백조의 큰아들 문곡성의 영웅담을 반복하는 여러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퀘내깃도는 퀘내기에 좌정하기까지 이름도 불분명한 상태이다.

구좌읍 김녕리의 퀘내깃도에 좌정한 당신의 내력담은 송당 신화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인데, 송당 신화의 체계에서 보면 권위랄 것이 별로 없다. 퀘내깃도는 심방의 구술에 따라 “태자님”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도 일관성이 없다. 실상 퀘내깃도라는 이름은 고유한 신격의 이름이 아니라 김녕리의 퀘내기라는 지명에 단순히 신위를 뜻하는 ‘도’가 붙은 것에 불과하다. 퀘내기라는 지명은 본풀이에도 나오듯이 윗 퀘내기와 아래 퀘내기로 나뉘어지는 지명이다. 따라서 그것은 마치 바람웃도라고 하는 신위의 명칭이 ‘바람위’라고 하여, 제주민속에서의 높은 권위를 뜻하는 어법에 ‘도’라는 신격의 호칭이 붙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박한 자연적 이름에 가깝다. 여기에 궁색함을 느낀 심방들이 ‘태자’라는 별칭을 덧붙이는 경우도 있으나 이것 역시 일반화되지 못한 것을 보면 ‘퀘내깃도 태자’라는 퀘내기 당신의 이름은 송당 신화의 체계에

서 볼 때 가치를 갈라나온 여러 당들 중에서도 소박한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퀘내깃도 태자가 소천국과 금백조의 몇 번째 아들인가 하는 경우를 보더라도 일곱째(양기정 구술), 열여섯째(김오생 구술), 여덟째(고대중 구술) 등 각각 다른데 공통적으로 그 서열이 한참 뒤쳐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퀘내깃당 본풀이는 첫째 아들 문곡성 본을 기준으로 하여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이 동일하다. 심지어 구술에 따라서는 영웅으로 귀환한 퀘내기 태자가 송당으로 찾아갔는데, 어머니 금백조가 “너는 김녕 피뇌깃또를 차지하라”고 지정하여 주기도 한다. 이런 구술에 따르면 퀘내깃도의 권위는 기존에 생겨난 형제당들의 내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강대경 구술²⁰⁾의 내용을 따라가 보면 귀향한 태자가 송당에 어머니를 찾아갔다가 김녕으로 가라는 지정을 받고 내려오다가 김녕과 송당 사이에 있는 덕천(검홀)에 좌정한 형인 문곡성을 찾아가는 대목도 나온다. 그러나 문곡성은 함께 살수 없다며 내치고 퀘내기로 가도록 명했다는 것이다²¹⁾.

더욱 주목할 것은 퀘내깃도는 김녕 마을에 있는 몇 개의 신당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송당 신화의 체계에서 퀘내깃당의 위세가 소박한 가지당에 불과하다는 것은 퀘내깃당이 있는 김녕리에 소재한 여러 신당의 역학관계에 비추어보면 잘 드러난다. 퀘내깃당은 김녕 마을의 여러 신당 중 하나에 불과하고 심지어 기존에 있던 신당에 굴종하기까지 한다. 김녕에는 퀘내깃당 말고도 큰당, 성색잇당, 자원당, 느멀잇당(남홀동), 한갯할망당, 한갯할으방당 등 여러 당이 터를 잡고 있다²²⁾. 그 가운데 큰당은 강남천자국 정자국 안가름에서 태어난 여신 삼

20) 진성기, 위의 책, pp.377-380.

21) 진성기, 같은 책, p.379.

형제 중 한 신을 모시는 당으로서, 그 삼여신은,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각각 조천, 김녕, 온평 등에 좌정하고 있었다. 이에 비하여 궤내기 태자는 좌정할 적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여 이리저리 옮겨 다녔다는 이야기가 본풀이마다 나온다. 심지어 진성기의 표준어 작업으로 알려진 김명월 심방의 구술에 따르면, 태자가 궤내기에 자리 잡을 때 큰당의 당신인 관세전부인은 아들이 없어서 소천국에게 가서 사정을 하여 양자로 데려왔다고 전한다²³⁾. 물론 이런 본풀이는 송당계 당신들과 김녕 큰당신 사이의 화해와 결합을 뜻한다. 그리고 그것은 김녕에서 당신들이 공존한다는 정치적 함의를 뜻하기도 하는데, 대중 개설서에서 한라의 영웅이라고 했던 궤내기 태자의 모습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그 신격이 매우 격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김녕에 있는 신당의 역사에서 보면 궤내깃도가 순서상 나중에 생겨났다는 것을 뜻한다.

2. 김녕 마을의 민속

그렇다면 제주 동부의 각지에 흩어진 송당계 신화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 궤내깃당 신화가 어떻게 제주도 당신의 대표영웅인양 과장되었을까? 거기에는 아마도 민속학적 관심과 신화학적 중요성 사이의 불균형이 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민속학적 관점에서 김녕 궤내깃당이 주목을 끈 것은 소위 돛제라고 하여 마을 사람들이 돼지를 잡아 당신을 모신다는 것이 주요하였다. 제주신화에서 돼지고지를 제물로 받는 신화는 세화본향 본풀이에도 나타나므로 궤내기 당신만의 특징은 아니지만²⁴⁾ 한두 해에 한번 씩 가정마다 돛제(돼지제사)를 올리는 풍습

22) 진성기, 같은 책, pp.371-383.

23) 진성기, 『제주도 무가 본풀이 사진』, p.373.

은 민속학적 현장조사를 하던 60-70년대의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을 것이다. 돛제라는 풍습은 유독 김녕 마을만의 특징인 양 민간에서도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더불어 주목할 것은 그동안 민속학적 현장조사나 연구에서 김녕 마을이 다른 마을과 비교해 볼 때 매우 큰 주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1980년대초에 이루어진 『한국구비문학대계』²⁵⁾를 보면 북제주군의 동부지역의 구비문학이 김녕 마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김녕 마을이 고유한 민속과 오래된 생활습관을 간직했다는 기준에 따른 것이었겠으나 이것은 특정 주제에 따른 것이 아니라 어쩌면 편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현장 조사는 제주동부지역의 문화적 표준이 김녕 마을로 확정된 듯한 결과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그런 결과 제주내륙에 위치하면서 제주신당의 원조로 받아들여지는 송당 본향의 본풀이를 비롯한 제주내륙(웃드르)의 무속과 민속에 대한 조사나 연구는 비교적 미진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거기에도 궤내깃당의 형세가 커다란 굴로 되어 있어서 일찍이 유물 조사가 이루어지는 등 고고학적 탐구의 대상마저 되었다²⁶⁾. 이런 사실들이 궤내기당 본풀이에 대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 영웅이 되어 귀환한 궤내기 태자의 위용에 놀란 소천국과 금백조가 죽었다는 기이한 본풀이를 구연한 경우마저 생겼고, 우연찮게 이것이 정본인양 표준어로 옮겨지기까지 했다²⁷⁾. 그러

24) 현용준, 『제주 신화의 수수께끼』, pp.162-167.

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26)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pp.141-143.

27) 이달춘 심방의 본풀이를 기본으로 삼은 현용준의 채록은 『제주도 신화』에 실렸는데, 이것은 다시 장주근의 『풀어쓴 한국의 신화』에 그대로 옮겨지고, 다시 고대경의

나 김녕의 궤내기당의 본풀이는 송당 신화의 아들 영웅인 첫째 아들 검
 홀 문곡성의 되풀이이며 그 서열도 한참 뒤지는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지금의 궤내기당에 좌정하기까지 당신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자리를 옮겨온 사실은 사실 그 당신을 모시던 집단이 이동했거
 나 정착이 불안정했음을 뜻한다.

또 하나, 궤내기 당신의 신격을 떨어뜨리는 것은 본풀이 자체가 담고
 있는 바, 당신의 위력을 과장한 대목에서 나온다. 궤내기도의 태자는 한
 라산을 떠나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다가 김녕리 입산봉으로 와서 좌정
 하였으나 물 한 모금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그러자 태자가 조화를
 부려 김녕에 흉년을 당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력을 내보인다는 것이
 다. 이와 같이 당신이 보이는 분노와 풍운조화는 얼핏 보기에는 굉장한
 위력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권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
 지 못했음을 뜻한다. 신당의 성격에 따라 무슨 병을 고쳐준다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당신의 위용은 그런 부술에서 형성되지 않음은
 신화의 세계에서나 인간의 세계에서나 마찬가지이다. 그것의 가장 전형
 적인 예는 바로 궤내기 당신의 부모인 소천국과 금백조의 성격에 잘 나
 타나고 있다. 소천국과 금백조는 최고의 권위로 존재하는 당신이지만
 그들의 행적 어디서도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모습이 없다. 소천국은
 수렵의 신으로서, 금백조는 농경의 신으로서 각자 타고난 능력으로 권
 위를 인정받고 있다. 그야말로 그들의 권위는 권위적이지 않다. 그런 반
 면에 궤내기도의 권위는 권위적으로 강요된다. 이런 내력담 때문에 궤
 내기도는 위풍당당한 영웅이라기보다는 음습한 무속의 기운을 띤 듯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신들의 고향』에서도 이어짐으로써 정본인양 확산되었다.

송배를 받는다는 점은 송당계 아들신들의 대체적인 특징인데, 표선면 세화리 당신이나 김녕리 켜내기 당신의 본풀이에서처럼 그 능력이 횡포에 가깝게 드러나는 경우에는 그 신위가 두렵기는 해도 존경은 덜해지는 법이다. 무속의 협의가 그래서 더욱 짙어졌을 것이다.

한편, 켜내기 신당은 커다란 굴로 되어 있어서 일찍이 고고학적 발굴 조사가 이루어졌고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²⁸⁾. 그런데 켜내기당에서 나온 유물들과 켜내기당 본풀이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을 가정할 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켜내기가 큰 동굴이어서 고대부터의 생활의 흔적들이 출토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당본풀이의 형성에 비추어볼 때, 송당계 신화의 서열에서 한참 뒤쳐지는 켜내기당 태자 본풀이가 켜내기 굴에 살았던 고대인의 삶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고대인의 생활 흔적은 그 자리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적층을 이루었겠지만 당본풀이에 나와 있듯이 켜내기 당신은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마지막으로 켜내기에 좌정하게 되었던 것이다. 제주신당의 기원을 얼마든지 고대로 거슬러 추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켜내기 당신과 켜내기굴의 출토 유물과는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켜내기당 본풀이가 유독 주목받은 까닭은 켜내기굴의 고고학적 유물을 켜내기 당신 본풀이와 직접적으로 관련지으려 한 기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8) 김녕리의 켜내기라는 지명에 대해서는 구연에 따라서는 ‘괴노기’ ‘켜네기’ ‘켜내기’ 등으로 제각각이다. 일찍이 1960년대에 장주근, 현용준이 켜내기로 썼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를 따르고 있다. 그런데 장주근은 켜내기의 해석을 “켜(窟), 내(內), 귀(鬼), 또(神의 존칭어미)”로 풀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신당의 신격을 ‘귀(鬼)’로 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V. 문곡성은 누구인가

1. 본풀이 속의 문곡성

검훤 문곡성이 송당 신화의 2차 신화의 원형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듯하다. 그러나 소천국과 금백조 사이에서 난 아들의 이름이 어째서 문곡성(혹은 문국성, 문성국)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명료하지 않다. 송당계 신화를 차용하는 신당들은 보통 김씨 할으방이란 호명으로 함께 모시는 경우가 있으나 차이가 크다²⁹⁾. 하지만 열여덟의 아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는바, 금백조의 아들들이 반드시 고정된 가문의 성씨로 이름을 받지는 않고 있다. 신들의 호칭이 반드시 성씨와 이름으로 나누어지는 것도 아니다. 제주서사무가의 일반신 본풀이에서 보듯이 한편으로는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기원이 망실되어 알 듯 말 듯한 이름이 한 덩어리로 붙여질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주목한 이상문 심방의 본풀이에서는 문곡성의 이름이 본래는 송곡성이었으나, 강남천자국에서 신원조회를 받을 때 뜬금없이 문곡성으로 속여서 말한 것으로 되어 있다³⁰⁾. 하지만 송곡성(또는 송국성)이 이름을 속여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만약 신당 본풀이의 기원을 조상신 본풀이로 축소시킨다면 그것은 검훤당의 상단궐이 송씨였다가 나중에 문씨로 바뀐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금백조의 첫째 아들 검훤 문곡성이 검훤이라는 한 마을에만 국한되지 않고 송당에 인접한 여러 지역에 그 이름이 전할 만큼 잘 알려진 신이라는 것이다. 당시 본풀이만 보더라도 문곡성

29) 고대경, 『신들의 고향』, p.299.

30) 진성기,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p.413.

은 송당과 덕천 마을뿐만 아니라 표선면 지역에서도 본풀이로 전하고 있다. 표선은 송당과 지리적으로 바로 이웃하고 있는 마을인데 이곳에도 문국성 본풀이가 전한다는 것은 문국성이라는 영웅이 중산간 마을에서 널리 퍼져 나갔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보여준다. 사실 문국성은 무속신화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화에 흔적을 남길 만큼 잘 알려진 영웅이었던 것 같다.

2. 민담 속의 문국성

문국성 신화는 신당본풀이에서뿐만 아니라 민담으로까지 퍼져있는데, 그것은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에서 ‘신앙전설’ 편에 ‘문국성과 소목사’라는 제목으로 편집되어 있다. 그러나 전설에는 그것이 송당 신화와 관련되어 있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애월면 납읍리(納邑里)에 문국성이라는 이가 있었다. 용모가 장군의 형세요, 풍채가 으리으리하고 힘이 장사였다.

문국성은 서울에 올라가 장안을 주름잡아 거리낄 데가 없었다. 임금님이 문국성의 행세를 보고는 은근히 걱정하였다. 이놈의 용모는 장군형인데 너무 험잡스럽게 행세하는 것을 보니 국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국지리(國地理)로 있는 소목사(蘇牧使)를 제주 목사로 보내기로 했다. 지리에 능한 소목사가 문국성의 선묘(先墓)를 탐색하고 미리 조치를 강구하려 함이다.

소목사는 제주목사로 부임해왔다. 임금의 명을 잊지 않고 문국성의 선묘의 소재를 탐지해 냈다.

어느 해 소목사는 순력(巡歷)하면서 일부러 납읍리에 들렀다. 그래서 문국성의 부친을 불러들이고 그 선묘를 보겠다고 했다. (이하 생략)

이어지는 이야기는, 문국성의 용맹한 출생이 좋은 선묘에 있음을 알고 소목사가 피를 내어 문국성의 아버지로 하여금 조상의 묘를 옮기도록 유혹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용맹스런 영웅이 날 호형(虎形)에 있던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바람에 문국성은 영웅이 되지 못하고 집안이 망해버렸다는 이야기다. 제주에서 흔히 발견되는 장수설화계통의 전설이다. 영웅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적인 수단을 쓰지 않고 어릴 때 미리 부모가 아이의 날개를 잘라버리거나 조상의 묘를 옮겨버렸다는 식으로 영웅탄생의 좌절이 간접화되어 있는 것도 흔한 경우에 속한다.

그런데 여기서 그 주인공의 이름이 하필이면 문국성이라는 데 눈길이 간다. 금백조의 아들도 문곡성이나 문국성으로 불려지기 때문이다. 용맹스런 장수의 기상을 타고 태어났다는 것도 유사하다. 더욱 눈길을 끄는 것은 문국성의 기운을 꺾는 자가 소목사라는 점이다. 여기에 이르면, 이 전설은 송당 신화의 주인공 소천국과 아들신 문곡성의 이야기가 전설로 세속화된 경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소천국과 문곡성의 신화와 소목사와 문국성 전설을 비교해보면 석연치 않은 점들이 많다. 먼저 문곡성(문국성)³¹⁾이라는 주인공 이름부터 일치한다. 그리고 현용준이 채록한 전설에서는 문곡성의 모습이 신화 속의 문곡성과 마찬가지로 장군의 형상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런데 전설 속의 문곡성이 송당 신화의 문곡성과 거의 일치하는 위용을 보인다면 소목사는 소천국과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 관계가 심상치 않은 것은 우선 성씨가 일치한다는 점이고, 신화 속에서처럼 부자관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곡성과 대립한다는 것도 동일하다. 이런

31)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든 문곡성과 문국성 이 둘은 동일한 이름인 것으로 보인다. 본풀이에서도 구술자에 따라서 문곡성이 되기도 하도 문국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본고에서는 문곡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점들을 고려해보면 문곡성이라는 새로운 영웅이 탄생하면서 송당 신화를 확장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설에서는 조선시대에 관의 탄압을 받는 민중영웅으로 변모된 것으로 보인다. 수렵문명과 농경문명을 상징하는 소천국과 금백조에 대항하여 등장한 장수신은 강남천자국에서 무공을 드높인 전쟁영웅이라는 모습 이외에 새로운 것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수렵생활이나 원시의 농경은 아득한 고대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문곡성의 용맹성은 역사의 단계에 딱히 맞추어 생각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민담 속의 문곡성과 신당본풀이 속의 문곡성을 비교해보면, 당신은 어디까지나 ‘승리하는 장수신’이다. 그러나 민담은 좌절된 장수설화이다. 따라서 이 민담은 장수신의 출현 이후에 국가와의 갈등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좌절된 장수의 설화는 중앙집권적 왕권의 탄생과 밀접하게 관련될 것이다.

3. 역사 속의 문곡성

문곡성을 실재했던 역사적 인물과 관련짓는 경우도 있다. 그것은 제주의 전설에서 유명한 세 명인(名人) 가운데 한 사람으로 고전적, 진좌수와 더불어 생각하는 것이다. 이 세 영웅 중에서 고전적은 지리에 능한 유명한 지관이었고 월계 진좌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명의였다. 그리고 문곡성은 점술(천문)에 뛰어난 대가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지리, 의술, 천문에서 뛰어난 세 명인 중에서 고전적이거나 진좌수에 대한 전설은 온 섬에 걸쳐 몇 개나 뚜렷하게 존재하지만 이상하게도 문곡성의 점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전하지 않는다. 특히 이 삼신안의 이야기에는 앞서 나왔던 소목사가 끼어들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이 전설들은 종종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고전적의 전설은 현용준의 『제주도 전설』에도 있고 진성기의 『제주도 민담』에도 있다. 월계 진좌수 전설도 현용준의 채록과 진성기의 채록에 각각 전한다. 또한 『한국구비문학대계』에도 여러 가지가 전한다. 이들을 종합하고 덧붙인 고대경의 『신들의 고향』에는 고전적 전설이 들, 진좌수 전설이 넷으로 짜여져 있다. 한편 문곡성의 경우는 위에서 본 것처럼 현용준 편과 고대경 편에 전하기는 하는데, 현용준 편에서는 주인공인 문곡성이 장군의 용모를 타고났다는 것 밖에는 뚜렷한 이야기가 전혀 없고 다만 문곡성이 영웅이 되지 못하도록 피를 부리는 소목사의 활약상만 전한다. 고대경 편에서는 문곡성의 행적은 미미해서 별개의 장으로 다루지 않고 있는데, 그것도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나오는 이야기를 표준어로 옮기고 있을 뿐³²⁾ 새롭게 추가되는 내용은 없다.

그런데 문곡성은 조선시대 영조 때 실재했던 문영후(文榮后)와 동일시하기도 한다. 그런 언급이 일찍이 김석익이 쓴 『탐라기년』에 나오기 때문이다³³⁾. 그러나 이 한 가지 기록만으로 문곡성이 역사적속의 실존 인물이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가 왜 문곡성으로 불렸는지 역시 모호하다. 그가 전라도 곡성 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렸다는 주장도 사실은 너무도 단편적이다. 고대경의 편집에 들어있는 문곡성의 전설이라는 것도 사실은 두 영웅이 함께 나오는 자리에서 한 가지 일화를 위해 문곡성이 끼여 있을 뿐이다. 그래서 도대체 문곡성이 실존인물이었다고 간주하기에는 전하는 행적이 너무 빈약하다. 그가 점술에 뛰

32)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 남제주군 편』(1983)에서 남원읍에서 채록한 설화이다. 양남학이라는 주민이 구술(1982년, 당시 63세 남자)한 이야기로 「문곡성과 명인들」이라는 제목으로 채록되어 있다. pp.1112-1115.

33) 제주의 세 명인에 대한 언급은 『탐라기년』에서 영조 40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한 줄짜리 서술일 뿐 내용이 빈약하다. 정말 역사적 사실의 기록인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어난 신안을 가졌다고 했으나 현용준의 채록에서는 송당 신화의 아들 문국성과 유사한 용맹스런 장수의 모습을 담고 있을 뿐 어디에도 점술가의 흔적이 없다. 오히려 거기에는 지관 고전적과 대결하는 국지리 소목사의 활약상만 그려진다. 문국성의 기운을 꺾었으니 소목사 역시 대단한 인물이다³⁴).

제주 사람들이 삼명인(三名인)이라고 했다는 고전적, 진좌수, 문국성의 직능을 보면 지리, 의술, 점술로서 고대에는 하나로 통합되어 있던 신의 능력에 속하는 것들이다. 고대에는 하나의 신이 그것들을 전부 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도 했다. 이런 능력들을 분화시켜 각 분야의 영웅이 출현했다는 것은 제주섬의 문명이 그만큼 분화 발전하였음을 반영한다. 하지만 여전히 문국성의 행적은 명확하지 않다.

하여튼 본풀이를 원형으로 보자면 송당 신화에서의 소천국과 문국성의 갈등은 전설에서는 중앙권력에 대항할만한 위용을 타고난 장수 문국성의 출현에 위협을 느낀 왕이 소목사라는 대리인을 시켜 제압한다는 조선시대의 민중영웅담으로 변용되어 있다. 그리고 대정읍 안성리에서 채록한 전설이 애월읍 납읍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문국성 신화가 그만큼 널리 퍼져있음을 뜻한다.

본풀이가 아닌 민간전설을 보면 문국성은 장수와 점쟁이라는 전혀 상이한 두 주인공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송당신화에서 한라산을 지키는 신이 된 검흙 문국성의 신화와 문국성이라는 점술가의 얘기가 뒤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금백조의 첫째 아들로 태어나 부

34) 소목사에 대한 민담은 현용준의 채록 밖에도 「소목사와 오택묘」라는 이야기(송경은 구술, 1980년, 당 70세)가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 남제주군편』에 실려 있다.(pp.607-611). 현재까지의 채록으로 보면 소목사는 실력 있는 지관이었다. 흥미로운 것은 ‘충정도 소목사’로 나온다는 것. 제주의 세 명인과 관련되기도 하는 소목사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모에게 대항하다 쫓겨나서 용궁과 강남천자국을 거쳐 다시 제주도로 귀환하는 용맹한 신 문국성의 신화는 문씨성을 가진 18세기의 한 점술가의 행적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 보인다. 그리고 서사무가로 전해진 문국성의 신화는 민간에서 세속화되어 전승된 전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 원형을 오래 간직했으리라는 점도 상기해야 한다. 여러 신당 본풀이에 한결같이 등장하는 한라영웅 문국성은 전설 속의 희미한 점술가와는 어떤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

VI. 결론

송당 신화에서 금백조의 첫째 아들 문곡성이 보여주는 영웅적인 품모는 과연 제2의 영웅의 출현답게 온갖 난관을 이겨내면서도 의젓하고 당당하다. 하지만 문곡성의 영웅담이 검홀(덕천)이 아닌 다른 마을로 확산되어 토산 옷당이나 궤내깃당의 본풀이가 될 때는 문곡성의 모습은 당당한 민중영웅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민중에게서 대접을 받기위해 고약한 심술을 부리는 존재로 격하되기도 한다. 그것은 애초의 신화의 정신이 망실되어 한갓 풍운조화를 일으키는 괴이한 재앙신의 면모까지 보이는 것이다. 좌정할 장소를 찾지 못해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해 심술을 부리는 신인 김녕리의 궤내깃도나, 송당 신화가 변형되고 개작된 구좌읍 세화리의 금상도의 모습이 그런 부류에 속한다. 말단의 신당들에서는 신화의 기원이 망각되고 소소한 무속으로 퇴화된 신성의 타락을 목격할 수 있다.

김녕에 있는 여러 당신 중 하나에 불과한 궤내깃도는 송당계 신화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신화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송당 본향의 소소

한 한 아들신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김녕 마을이 보여준 민속학적 가치와는 무관하다. 이점은 앞으로 송당 신화의 가지당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요구한다. 그동안 알려진 송당 신화는 제주 신당의 원조로 인정되었으나 그 본풀이의 성격을 당 가르기와 관련지어 고찰하는 것은 미미했다. 다만 암묵적으로 초점이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기는 했으나 금백조와 소천국이라는 모태신화와 문곡성이나 깨내깃또라는 자손 신화의 성격구분이 뚜렷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면이 있었다. 심지어 자손 신화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바람에 일반신화처럼 근원이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1차 신화를 2차 신화의 부속된 부분으로 다루는 폐단마저 없지 않았다. 그러나 민속학적 관점에 거리를 두고 신화학적 관점으로 보면 1차 신화의 성격이 비로소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그렇게 신화를 나누어봄으로써 2차신화의 발생을 다시 새롭게 보게 된다. 즉, 송당 신화에서 2차 신화의 발생은 소천국과 금백조의 첫째 아들로 명백하게 고유한 이름까지 갖춘 문곡성 본풀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문곡성이라는 신격 역시 1차 신화에 부속되어 널리 전해지고 있는 점에 주목하면 그 위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또한 문곡성은 본풀이에서뿐만 아니라 민간전설이나 기록에도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그 명성이 드높았음을 알 수 있다. 문곡성은 소천국과 금백조가 상징하는 문명 이후에 등장하는 장수신이나 천문(점술)의 신으로서 그 직능이 분화된 문명을 상징한다. 송당 신화에서 문곡성이 차지하는 위상을 올바르게 확인하게 되면 그동안 송당 신화의 계보에서 한참 뒷자리인 깨내깃도 본풀이에 과도하게 주어졌던 가치가 바로잡힐 것이다.

참고문헌

- 고대경, 『신들의 고향』, 증명, 1997.
- 김진하, 「송당 신화의 기원에 대한 고찰」, 『탐라문화 제29호』, 2006.
- 진성기, 『제주도 민담』, 1976, 제주민속연구소.
- _____, 『제주도 전설』, 백록, 1992.
- _____, 『제주도 무가본풀이 사전』, 민속원, 1991.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2000.
- _____, 『제주도 무속과 서사무가』, 역락, 2001.
- 현용준, 『제주도 신화』, 서문당, 1996(초판 1972).
- _____, 『제주도 전설』, 서문당, 1996(초판 1972).
- _____, 『무속신화와 문헌신화』, 집문당, 1992.
- _____, 『제주도 신화의 수수께끼』, 집문당, 2005.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9-1, 북제주군 편』, 1983.
-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2, 제주시 편』, 1983.
- _____, 『한국구비문학대계 9-3, 서귀포시, 남제주군 편』, 1983.

Abstract

The separation of the myths of Song-Dang and the appearance
of the new hero Mungokseong

Kim, Jin-ha*

The myth of Song-Dang is composed of two parts. The first is the myth of Socheonguk and Kumbaikjo who have been separated after a short period of married life. The second is the story about their sons. According to the myth, they have 18 sons, 28 daughters and 378 descendants. Among their descendants, Mungokseong, the village god of Gum-Hul(now called Deok-Cheon) is the first son. But nowadays, Goenaiguito, the village god of Kim-Nyong is well known to be the most powerful son. But he is only the seventh or eighth.

The archetype of Gumbaikjo's 18 sons' story is necessarily the first son's. The first son Mungokseong is the typical hero in Jejudo shamanism. He was born with his own name. Although he had been abandoned by his parents, he returned to Jejudo as a triumphal hero. And then, in general, the appearance of the new hero is accompanied by the new myths. And the new hero also occupies different sanctuaries in other villages.

Socheonguk and Kumbaikjo represents respectively the hunting and the agriculture. Long after his parents had taken their political and cultural power, Mungokseong appeared as the military god. And the stories of Mungokseong has spread in all the narrative forms such as

* Teacher, Yangchung High School, Seoul

legends, myths, historical writings in Jejudo.

Key Words

myth, Song-Dang, Socheonguk, Kumbaikjo, Mungokseong, Goenaiguito.

교신: 김진하 158-056 서울시 양천구 목6동 911-2 양정고등학교
(E-mail : jobana@hanmail.net 전화 : 010-9541-3880)

최초 투고일 2006. 12. 5

최종 접수일 2007. 1. 16